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7. 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영국, 태국 여행 금지 권고 발표

- 7.3 외신은 영국 외무부가 “테러리스트가 태국에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”는 최신 평가를 토대로 태국 야라·나라티왓·송클라주 등의 여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
 - ※ 최근 태국에서는 남부 이슬람 지역에 대한 정치적 소외, 빈곤 등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등 테러 위협 고조

○ 獨, 하마스 테러 상징 ‘붉은 역삼각형’ 기호 금지 법안 통과

- 7.9 언론은 ‘독일 베를린 주 상원에서 親이스라엘 학자와 정치인 등이 동참하여 최근 확산 중인 하마스의 테러공격 대상을 나타내는 붉은 역삼각형 기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’고 보도
 - ※ 현지 언론은 최근 베를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당 낙서가 확산 중이며, 이는 親팔레스타인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강경 대응의 보복으로 해석한다고 부언

미주

○ 美, 독립기념일 33명 사망

- 7.7 언론은 미국 독립기념일(7.4)에 시카고에서만 총격 사건으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美 전역에서 발생한 총격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건으로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했다고 보도
 - ※ 美에서는 독립기념일이 일년중 총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로 '23년에는 1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했으며 '22년에는 총기난사로 7명이 사망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대테러 작전을 통해 테러범 11명 사살

- 7.7 언론은 나이지리아 軍이 보르노주 삼비사 지역에 위치한 ISWAP 거점을 공격하여 테러리스트 11명을 사살하고, 총기·수류탄 등을 회수하였다고 보도

중 동

○ UN, 후티叛軍이 구금 중인 구호요원 석방 요청

- 7.8 언론은 'UN 예멘 특사 「한스 그룬드버그」가 수도 사나에서 후티叛軍*이 납치하여 구금하고 있는 UN 직원과 구호요원·민간 구호단체활동가들의 즉시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'고 보도

* '14년부터 예멘 수도를 포함한 북부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해왔으며, 10년간 예멘 정부軍과 전투 중으로 사우디('14.3)·UAE('14.11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○ 이란 대통령 당선인, 저항의 축 지지 유지(KBS)

- 7.9 언론은 이란 대통령 「마수드 페제시키안」이 헤즈볼라를 비롯한 저항의 축*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, 美 국무부 대변인은 '이번 선거로 이란의 대외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'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

* 미국과 동맹국에 반대·저항하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었으나, 점차 시아파 맹주 이란이 지원하는 反 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이르는 말로 변모

아 · 태평양

○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 '제마 이슬라미야' 해체 선언

- 7.4 언론은 1993년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의 동남아시아 지부로 결성되어 2002년 발리 폭탄테러(202명 사망, 209명 부상)를 주동했던 무장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(JI)*가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고 보도

※ 전문가들은 JI가 이슬람 기숙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해체를 결정했다고 분석, 同 선언에도 JI의 테러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경계를 당부

○ 中-벨라루스, 대테러 연합훈련으로 안보협력 강화

- 7.8 언론은 중국이 최근 상하이협력기구(SCO)*에 정식 회원국이 된 벨라루스와 테러 상황을 가정 대테러 연합훈련을 벨라루스에서 8일부터 19까지 실시함으로써 兩國間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보도

* 同 기구는 테러리즘·분리주의·극단주의를 '3대 罖'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,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의 안전보장 목적으로 회원국 간의 정치·경제·군사 등의 분야 협력 강화

파키스탄, 선거 유세현장 폭탄 테러

- '18.7.13 선거를 앞둔 파키스탄에서는 선거 유세 현장을 노린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, 최소 132명이 사망
 - 발루치스탄州 지역의 유세현장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로 시아파 신생 정당 선거후보자를 포함해 128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
 - 카이버팍툰콰州에서는 선거집회를 노린 자폭테러로 4명 사망, 39명 부상
 - 사건 직후, 수니파 테러단체 ISIS는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 - ※ 테러단체들은 '이슬람 율법(샤리아)'이 지배하는 神政국가 건설을 주장하면서 서구식 법치주의인 민주적 선거제도를 배격
 - 한편, 외신들은 "ISIS 등 이슬람 무장세력이 지역 토착 세력과 연계, 유세 현장을 집중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보이고 있다"고 분석
 - 또한, 이들은 군중이 운집한 유세현장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며 쏠 세계 이목을 집중, 국제사회에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고 부언
- ⇒ 11월 美 대선 등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위협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해외 우리 국민·기업들의 신변안전 유의 당부 필요

< 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(ISIS) >

- (목표/이념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이슬람국가 건설 / 이슬람극단주의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 등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, 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4개 지부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·북부 및 시리아 동부지역
- (활동수법) 시리아내 점령지 상실('19.3) 이후 잔당이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중인 가운데 북아프리카·아프간·동남아 등지로 이동, 재건모색
- (주요동향)
 - '01.9 미국 항공기 납치 후 뉴욕 등에서 공중 테러 자행(2,996명 사망)
 - '18.7 시리아 스웨이다에서 총기 난사 및 자폭테러 자행, 246명 사망